

The Gospel of Mark

Sermon 7

Title: "Jesus and the paralytic"

Scripture: Mark 2:1-12

Date preached: October 9th 2022

Scripture: Mark 2:1-12

1 And again He entered Capernaum after *some* days, and it was heard that He was in the house. **2** Immediately many gathered together, so that there was no longer room to receive *them*, not even near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3** Then they came to Him, bringing a paralytic who was carried by four *men*. **4** And when they could not come near Him because of the crowd, they uncovered the roof where He was. So when they had broken through, they let down the bed on which the paralytic was lying.

5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you."

6 And some of the scribes were sitting there and reasoning in their hearts, **7** "Why does this *Man* speak blasphemies like this?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8 But immediately, when Jesus perceived in His spirit that they reasoned thus within themselves, He said to them, "Why do you reason about these things in your hearts? **9**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you,' or to say,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10**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paralytic, **11** "I say to you, arise, take up your bed, and go to your house." **12** Immediately he arose, took up the bed, and went out in the presence of them all, so that all were amazed and glorified God, saying, "We never saw *anything* like this!"

1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2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5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6 그러자 거기 앉아 있던 몇몇 율법 학자들은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8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10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 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Review

Last time we finished chapter 1. The chapter ended with Mark's account of Jesus healing a leper. Let u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some of the things we looked at last time.

For those of us living in the developed, or first world today leprosy is not often on our radar. That is not to say that it doesn't exist. Although new cases are very rare, there are people living in South

Korea with leprosy and other related diseases. Leprosy was a common disease in the ancient world. It had been around for a long time. In fact medical historians believe that leprosy originated in Egypt. Do you know why they believe that? The reason is that the bacteria that causes leprosy has been found in an Egyptian mummy. So when the Egyptians mummified the corpse they also inadvertently mummified the bacteria too.

It was a horrific disease that caused great fear and superstition among people. This was because ancient people had no form of pathology. They were unable to study and learn about diseases as we do today. Therefore they did not know what caused them, and were only able to treat them in rudimentary and often ineffective ways. This of course meant that common people wanted very little to do with sick people.

When people saw lepers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looking at the “living dead.” Also many people regarded leprosy as a judgement from God for a terrible sin the person had committed. The unknown and fearful nature of this disease combined with its association with judgment meant that lepers were shunned by society.

In the Old Testament God gave commands and instructions for how to deal with people with leprosy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 principle method for dealing with such people was isolation. Since no real medical treatment was available these people became social outcasts. Classified as defiled or unclean they lived away from other people. According to Leviticus chapter 13, they had to say, “Unclean! Unclean! Unclean!” as they walked around in order to warn people of their presence. Furthermore they had to tatter their clothes to make it visually obvious to anyone seeing them that they were lepers. This was the pitiable condition of the man who approached the Lord Jesus.

As I said last time the fact that this leper was even approaching Jesus took great courage. He came before the Lord with a respectful, reverent, humble attitude. Luke who tells us about the same incident in his gospel tells us that the man fell on his face. Remember that as a leper he was supposed to keep his distance. However he had obviously heard that this man Jesus had been blessed by God with the ability to heal. He therefore showed great faith in coming to Jesus and asking to be in effect not only healed of his disease, but also as a result being welcomed back into society. His words to Jesus demonstrate his faith,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When the Lord Jesus saw this man and heard these words He had great compassion. He saw beyond this man's probably hideous outward appearance and saw his heart. Here was someone created in God's image. Someone who needed love and compassion in his desperate condition. Jesus reached out and touched the man. He was willing to heal this man. As soon as Jesus had spoken Mark tells us that the leprosy left him. He was instantly cured. Jesus told him to keep what had happened quiet. This was because Jesus did not want to be seen as only someone who was there to heal the sick. He had an important message, the gospel, to impart. The great danger was that people would only look at the miracles of healing and not beyond them to what they revealed about the one performing them.

The cured man was simply to go to the priest to be examined and then make the necessary sacrifices at the temple. Sadly the man did not obey Jesus' words. He went around telling everyone what had happened. This resulted in large crowds seeking Jesus, and He was unable to preach and teach in the towns and cities.

Basically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mass hysteria. It's similar to the kind of response you get today when a very popular pop group like BTS or NCT Dream appear in public. People just go

wild. In such situations its very easy for people to be crushed, trampled or hurt. Naturally this is not the kind of situation Jesus desired. It is also hardly a good setting in which to tell people about the life transforming gospel. This is where we concluded last week.

Today we begin a section of Mark's gospel that shows increased and sustained hostility towards Jesus. Mark has grouped together a number of incidents in which Israel's leader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challenge and oppose the Lord Jesus. Today we will look at the first incident. The healing of the paralytic.

지난번에 우리는 1 장을 마쳤습니다. 이 장은 예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신 마가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나 제1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병이 자주 포착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한국에서 나병 및 기타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병은 고대 세계에서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다. 사실 의학 역사가들은 나병이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나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미라로 만들 때 실수로 박테리아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큰 두려움과 미신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고대인에게는 병리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고, 기초적이고 종종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 있는 죽은 자”를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병을 그 사람이 지은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이 질병의 알려지지 않고 두려운 성질은 심판과 관련되어 나병 환자를 사회에서 기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병과 다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은 고립이었다. 실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럽거나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레위기 13 장에 따르면 그들은 “더럽다! 더러운! 더러운!”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해 걸어 다닐 때, 더욱이 그들은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도록 옷을 너털너털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의 한심한 처지였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고 경건하며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누가는 그 사람이 엎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문둥병자로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병이 치유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시 사회로 환영받기를 간구하는 데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한 그의 말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크게 불쌍히 여기사 그는 이 남자의 끔찍할 것 같은 외모 너머를 보았고 그의 마음을 보았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랑과 연민이 필요했던 사람.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가는 문둥병이 자기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

치기 위해 거기 있는 사람으로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메시지, 즉 전할 복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밝혀진 것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성전에서 필요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에서 전파하고 가르치실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단 히스테리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나 NCT 드림 같은 인기 팝 그룹이 대중 앞에 등장할 때 받는 반응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짓밟히거나 짓밟히거나 다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 결론을 내린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 지속적인 적개심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한 부분을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주 예수께 도전하고 반대하기 시작한 여러 사건을 함께 묶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1 And again He entered Capernaum after *some* days, and it was heard that He was in the house.

Mark picks up the narrative here some time after Jesus has been forced to travel around outside the town and cities. Following an undisclosed period of time, possibly weeks or even months Jesus returns to His Galilean home base of Capernaum. We know that Jesus did not have His own house (Matt 8:20) so this was presumably Peter's house. After a lengthy period of travelling and preaching no doubt Jesus and the disciples were anticipating a time of rest and recuperation in a comfortable and familiar setting. However this was not to be the case. Jesus by this time is a celebrity. Wherever He goes people flock to Him. As an interesting aside crowds play an important role in Mark's Gospel. He refers to crowds of people surrounding Jesus nearly forty times in the first ten chapters. So news soon spreads around the region that the Lord Jesus is back in town and staying in this particular house. Let's see what happens next.

마가는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벗어나 여행을 하시도록 강요당한 후 얼마 후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간, 아마도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자기 집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마 8:20).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행하고 전파한 후에 틈틈이 예수와 제자들은 편안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명인사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흥미로운 제쳐두고 군중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처음 10장에서 거의 40번이나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곧 주 예수께서 이 마을에 다시 오셔서 이 특별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이 지역 전역에 퍼집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2 Immediately many gathered together, so that there was no longer room to receive *them*, not even near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3 Then they came to Him, bringing a paralytic who was carried by four *men*.

In the ancient near east hospitality was a basic law that everyone lived by. Travel was dangerous and difficult therefore providing food and shelter was considered a sacred duty. It is actually a very beautiful way of living, which in our isolationist and selfish world we have largely forgotten. People

in the past had much more of a community spirit. Today most of us do not even know, let alone provide hospitality to our neighbours. Hospitality to people in the east meant that people, either friends or strangers would never be turned away from your door. You would invite them into your house and provide them with food, drink and shelter.

This meant that when the crowds arrived at the house in which Jesus was staying they were invited in. This of course all ties in with Mark's presentation of Jesus. Jesus in Mark's gospel is the suffering servant. A servant must always be ready to serve whenever it is necessary. Their concerns and needs are of secondary importance.

At first it went well but as more and more people arrived it began to get a little crowded. Soon there was not even space by the door in which to accommodate people. We might also assume that those unable to gain entry waited outside in the courtyard or tried to peer in at the windows. We have a game in the UK called "Sardines." The game gets its name from the way that sardines are tightly packed into a tin can. In the game sardines you see how many people you can cram into a small space like a small room or a wardrobe. It's a fun game to play. The house in Capernaum was beginning to resemble the game of sardines.

The Lord Jesus rightly recognised what this was. This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preach to the people. Here was a literally captive audience. It was the perfect time to preach the "Word," the good news that the Kingdom of God had arrived.

Mark next introduces us to the paralytic man and his four friends. In the King James Bible the man's condition is described as "palsy." This is the Greek word *paralutikos*. This is a general term which could indicate any one of the following;

whole body **paralysis**,

a **stroke** affecting part of the body,

paraplegy affecting everything below the neck

or **catalepsy** meaning a contraction of the muscles in the whole or part of the body or severe cramps.

We do not know which of these applied to this man. We do know that he was unable to walk and was therefore being carried on his bed or a mat. The man's four friends had obviously heard about this amazing healer. They believed that their paralytic friend could be cured if they could just reach Jesus and get His attention. Let's read on.

고대 근동에서 환대는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기본 법칙이었습니다. 여행은 위험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고립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잊어버린 매우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훨씬 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이웃에게 후대를 베푸는 것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동방 사람들에 대한 환대는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결코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 음료 및 피난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이 예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에 도착했을 때 초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마가가 예수를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종은 필요할 때마다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과 필요는 이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옆에는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입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당에서 밖에서 기다리거나 창문을 들여다보려고 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Sardines"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정어리가 깡통에 단단히 포장되어 있는 방식에서 그 이름

을 얻습니다. 정어리 게임에서 작은 방이나 옷장과 같은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가버나움의 집은 정어리 던지기 게임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포로 청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기쁜 소식인 “말씀”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는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를 소개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남자의 상태를 “마비”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paralutikos* 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전신 마비, 신체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뇌졸중, 목 아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마비 또는 강직은 신체 전체 또는 일부의 근육 수축 또는 심한 경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들 중 이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침대나 매트에 실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네 친구는 분명히 이 놀라운 치료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 친구가 예수님께 다가가 주의를 끌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 And when they could not come near Him because of the crowd, they uncovered the roof where He was. So when they had broken through, they let down the bed on which the paralytic was lying.

The scene is not difficult for us to imagine. Four men carrying their friend on some kind of bed, mat or stretcher. There was no way they could push through the throng of people to get near to Jesus. Maybe as individuals they could do this, but not carrying their friend. What on earth were they to do? Well, one of them has a very good idea. It is a very clever way of gaining access to Jesus. In order to explain his idea I need to tell you a little about houses in Jesus day. In Palestine houses in almost all cases had flat roofs that were reached via a set of stairs on the outside of the building. These flat roofs were actually very practical. They provided extra space to do household tasks like preparing food or sewing, get some fresh air, for children to play or just relax. Houses usually had small windows which meant the interior was often gloomy. How nice then when the weather was fine to go up onto the roof. The men then carry the paralytic up onto the roof. Mark then tells us that they uncovered the roof and broke through.

그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침대, 매트 또는 들것에 친구를 안고 있는 네 명의 남자.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개인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친구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들 중 하나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접근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 시대의 집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건물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이 평평한 지붕은 실제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 준비나 바느질과 같은 가사 일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이들이 놀거나 그냥 쉴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집에는 대개 작은 창문이 있어서 내부가 종종 우울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옥상에 올라가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다음 남자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운반합니다. Mark 는 그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That description sounds quite destructive doesn't it? If someone broke through your ceiling it would be a big, and expensive problem to fix. This was not really the case here. Though I'm sure Mrs Peter was not very happy about it. Let me tell you a little about the construction of Palestine house roofs. House roofs were typically constructed using supporting wooden beams. On top of the beams branches or thatching would be laid. Over this mud, clay or sometimes fired tiles would be placed.

This would then be rolled flat. It made for a nice strong watertight ceiling. However since it was in effect just compacted clay but it could with some effort be broken through. This is exactly what these men did. They hacked a hole through the roof and then lowered their friend down. Finally he could receive the healing they hoped for. Lets read on.

그 설명은 꽤 파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천장을 뚫었다면 그것은 고치기 위해 크고 값비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Peter 부인이 그것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팔레스타인 집 지붕 건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지붕은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나무 기둥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들보 위에 가지나 초가지붕을 놓을 것입니다. 이 진흙 위에 점토 또는 때때로 소성된 타일을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평하게 롤링됩니다. 그것은 멋진 강력한 방수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찰흙을 압축했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친구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이 바라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5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you.”

The Lord Jesus recognised their faith. They had carried the man to this house. They had dug their way through the roof and lowered him down. They fully believed that he would walk out of there a healed man. Some have noted that the “faith” of the paralytic man is never mentioned. It seems only to refer to the faith of his friends. I think it likely that the paralysed man had faith too. I'm sure they had not brought him to the place where Jesus was staying against his will. Also what sick or disabled person does not want, or hope to be healed.

So perhaps what Jesus said next surprised, or even disappointed them. They wanted to hear, “Get up and walk.” Instead Jesus told the man that his sins were forgiven. What an anticlimax we might think. Not at all, Jesus rightly went first to this man's greatest need. You see it's no good being physically healed if your heart remains untouched. Without dealing with your sins you will face an eternity separated from God. I like what one commentator wrote about this,

What good was it if the man had two whole legs and walked right into hell with them.

The Jews of Jesus day believed that suffering and sickness came as a result of sin. As I have said before this is often, but not always the case. Interestingly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gospels where Jesus directly correlated sin and suffering. So it may well be that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re was a connection between this man's sins and his paralysed condition.

It was of course an amazing thing for Jesus to say in the hearing of all present.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를 이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곳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예수께서 그의 뜻에 반하여 머물고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은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실망시키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절정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장 큰 필요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건드리지 않은 채로 있으면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루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평론가가 이에 대해 쓴 글이 마음에 듭니다. 그 남자가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고통과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종종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죄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의 죄와 그의 마비된 상태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참석한 모든 사람의 귀에서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6 And some of the scribes were sitting there and reasoning in their hearts, 7 “Why does this Man speak blasphemies like this?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The scribes who were present hear Jesus say these words. The detail that they were sitting suggests they had been given a place of some comfort and importance to sit. Other people had to sit or stand wherever they could find room. Luke in his gospel tells us that, **there wer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sitting by, who had come out of every town of Galilee, Judea, and Jerusalem (Luke 5:17).** We quite rightly often give this group of Jewish leaders a hard time. But let's say two positive things about them here. Number one they are right that it is only God who can forgive sins. These men were experts on the law. So they knew that no Old Testament prophet ever claimed personal authority to forgive sins. This is because all of our sins are against God alone. He is pure and Holy and our sin may be defined as us breaking His perfect standards. This is why only He provides the means by which our sins can be forgiven.

Number two they are right to carefully consider or challenge anyone who makes the claim that they can forgive sins. When a church leader, pastor or bible teacher makes a statement or claim we should not just blindly accept it. We should think carefully and compare what is said with God's revealed Word. Sadly so many Christians are persuaded, or if I were being harsh brainwashed by charismatic leaders to believe unbiblical things.

With these positives being said we should now note that the scribes of course were wrong because they came to the wrong conclusion regarding who Jesus wa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were hard hearted and closed minded. They had already pre-determined what they thought about the Lord Jesus. They were therefore unable to evaluate all the evidence and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They accuse Jesus here of speaking blasphemies. What exactly do we mean by blasphemy?

Blasphemy can be classified in three ways.

- 1 It is denying one of God's divine attributes.
- 2 It is applying something to God that is absurd or inconsistent with God's true nature.
- 3 It is saying that you or others possess an attribute or quality that only belongs to God.

It is of course number three that they are applying here to the Lord Jesus. They are saying that Jesus is claiming for himself the power and authority to forgive which is something only God can do. Let us see how Jesus reacts.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세부 사항은 그들이 앉을 수 있는 편안함과 중요성을 부여받은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앉거나 서야 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각 고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았다고 말한다(눅 5:17). 우리는 종종 이 유대 지도자 그룹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에 대해 두 가지 긍정적인 점을 말해보자. 첫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위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죄는 그분의 완전한 표준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신중히 고려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 성경 교사가 어떤 진술이나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에 의해 비성경적인 것을 믿도록 가혹하게 세뇌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과 함께 우리는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론 틀렸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미리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신성 모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성모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중 하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그것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주 예수께 적용하는 것은 물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권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 But immediately, when Jesus perceived in His spirit that they reasoned thus within themselves, He said to them, “Why do you reason about these things in your hearts? 9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you,’ or to say,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Let us be clear here regarding what is happening. The scribes and Jewish elders are thinking internally that Jesus is guilty of blasphemy. In essence that, He a man (in their eyes) is claiming to be God and having the power to forgive sins. So what Jesus does next is stunning. He in effect proves to them that He is God by telling them what they were thinking. There are certain things we can tell just by looking at someone and reading their expression. We can usually tell for example if someone is in pain or discomfort. However complex internal thoughts cannot be read just by looking. That is unless you are God.

The Lord Jesus challenges these men to reason carefully by asking them a question. The question is as follows, “which do you suppose is easier to say to a paralysed man, ‘Your sins are forgiven’, or ‘Get up, pick up your bed and walk’?” It is of course much easier to say to someone that their sins are forgiven. This is because there is no visible evidence of this taking place. It's a purely internal thing that cannot be measured by observers. But if you tell someone to get up and walk the evidence of your power and authority is easily observed. The person either gets up and walks or they don't. If they don't get up and walk you are exposed as a fraud.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합시다.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그들의 눈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누군가를 보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통스럽거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내면의 생각은 보는 것만으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이 아닌 한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주의 깊게 추리 하라고 권하십니다. 질문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찰자가 측정할 수 없는 순전히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당신의 능력과 권위의 증거는 쉽게 관찰됩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걷지 않으면 당신은 사기꾼으로 노출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0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paralytic, 11 “I say to you, arise, take up your bed, and go to your house.”

12 Immediately he arose, took up the bed, and went out in the presence of them all, so that all were amazed and glorified God, saying, “We never saw *anything* like this!”

Of course for the Lord Jesus to both forgive sins and to heal is easy. So it is logical to assume that if Jesus has the power to heal the man's disease, He also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his sins. He tells them here that He as the Son of Man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This is Mark's first use of the term “Son of Man.” He will go on to use it a further 13 times. Jesus often referred to Himself with this title. It was in fact Jesus favourite designation for Himself.

This was partly because it was a Messianic title free from political and nationalistic sentiment, but also of its connection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Daniel. In Daniel chapter 7 which we read about the King of glory who comes like the Son of Man (Dan 7:12-13).

Turning from the scribes Jesus directs His words towards the paralysed man. He gives Him three commands. The first was to “arise.” He was to put his faith to the test and see if those previously useless limbs could support his weight. He was to “take up his bed.” Now that he could walk he should no longer rely upon the charity of others. He was to take responsibility for himself. Finally he was to “go home.” Probably, and understandably overwhelmed by what had happened the man needed this direction. The man immediately obeys all that he is told.

We can only imagine the effect this had on the people crowded into that small house. Mark tells us that they were amazed by what they had seen. I think that is probably a little bit of an understatement. But more importantly they glorified God. They understood that it was God who had performed this miracle. We would do well to follow their example. How often we neglect to properly glorify God for the wonderful things He does all around us.

물론 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칠 권세가 있다면 그에게도 그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가가 “인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13 번 더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칭호로 자신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아하시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민족주의적 정서가 없는 메시아적 칭호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 장에서 인자와 같이 오시는 영광의 왕에 대해 읽습니다(단 7:12-13).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서 돌아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이전에는 쓸모없던 팔다리가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침상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마침내 그는 "집에 가"였다. 아마도, 그리고 이해할 만하게도 일어난 일에 압도되어 그 남자는 이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들은 모든 것에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 작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본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약간의 과소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얼마나 자주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What are we prepared to do to get to Christ?

The paralytic man's friends were incredibly determined. They knew that they had to get their friend to Jesus. The crowds didn't deter them. Even a physical barrier in the building's roof didn't deter them. Nothing would stop them from reaching the Lord Jesus. What an example of faith they are.

What about us? How determined are we to seek after and find the Lord Jesus? I wish I could confidently state that most, if not all Christians were eager and energetic to get to the Lord Jesus. The reality is that many Christians are apathetic and half hearted. They don't read their bibles often, they don't pray every day, they are not fully committed to attending church each Sunday. So I am issuing a challenge to you listening today.

How zealous are you to get to Christ? What are you willing to do to break through and be by his side? Are you tearing at the roof with your fingernails or have you given up without even climbing up the steps?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붕의 물리적 장벽조차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본보기입니까? 어떤 회사 소개? 우리는 주 예수를 찾고 찾기로 얼마나 굳게 결심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열심과 활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하고 마음이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주 읽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며,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기로 완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내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입니까? 돌파하고 그의 옆에 있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손톱으로 지붕을 뜯고 계십니까,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포기하셨습니까?

2 Addressing people's real need

Naturally the paralysed man just wanted to be physically healed. He probably wanted Jesus to skip ahead to the part where he told him to arise and walk. But the Lord Jesus knew that the man's sins needed be addressed first. This was the number one priority. It's no good dealing with physical needs whilst neglecting spiritual needs. Our physical ailments only last for a lifetime. Our spiritual ills last for eternity. This is an important truth that many well meaning Christians seem to forget today. So for example some churches today sponsor medical teams to go to provide aid in third

world countries. This is a wonderful thing to do and I'm sure it is greatly appreciated in these countries. But the real issues are sometimes ignored. It's good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and cure diseases, but what these people really need to hear is the gospel message.

Even in our own evangelism we sometimes push to one side what people really need to hear. We may try to persuade people to come to church by telling them how fun it is, or by telling them what kinds of programs the church offers. Or how good the church restaurant or coffee shop is. The real reason they need to come is to hear the life changing and convicting message of the gospel. The same thing applies when we share the gospel with people. Although it is challenging to tell people that in God's eyes they are sinners and are guilty this is what people need to hear. Let us then recognise what people really need to hear and not be afraid to share that with them.

당연히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건너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영적 필요를 무시하면서 육체적 필요를 다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평생 동안만 지속됩니다. 우리의 영적 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선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제3 세계 국가에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이며 이 나라들에서 크게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때때로 무시됩니다. 의술을 베풀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 들어야 할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전도에서도 때때로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한쪽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하거나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설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 식당이나 커피숍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삶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이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그들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